

溟州郡下詩洞古墳調査報告

金正基
李鐘哲

1. 調査經緯

江原道 溟州郡 下詩洞 三里에 있는 古墳에 關하여 筆者들이 처음 報告에 接한 것은 七〇年 八月 二四일이며 八月 二五일 現地를 調査하여 그것에 最近에 攪亂된 砂地平原에 散在한 一〇〇餘基의 竪穴式 石槨古墳群임을 確認하고 完全 破壞된 古墳 二基에 對하여 八月 二六일부터 八月 三一日까지 攪亂遺物 採集과 그 内部를 調査하고 撮影 및 記錄을 하였다.

江原道 江陵에서 三陟方向 國道를 따라 約 一二km 地點에 韓國電力嶺 東火力發電所가 東海에 沿하여 建設되고 있는데 建設現場 後門 附近에 俗稱 새마을이 있다. 새마을을 가로 지르는 小路를 따라 八〇〇m 北上하면 四・五年生 내지 一〇餘年生 썩되는 소나무가 드문 드문 자란 東海 沿邊 砂地에 古墳이 群集한 遺蹟地가 있다. 地籍上으로는 下詩洞 三里 林野 一三一(一三六番地에 屬한 二六町步에 이르는 砂質平原이며 緯度는 북위 三七도 二七分 동경 一二九도 四〇분에 位置 한다.

2. 古墳群의 分布

筆者가 現地에서 確認한 盜掘坑은 二六町步의 砂地平原에 무려 二二三 二個所로 새마을에서 西北으로 僻은 小路를 中心으로 東側에 一六六個所 西側에 六六個所로 後에 回收된 土器類가 一五〇點임을 감안할 때 遺

蹟地가 얼마나 廣大한가를 짐작할 수 있다.

古墳群을 中心하여 西便은 淡水湖인 風湖에서 東海로 흐르는 작은내(川)가 있고, 東便은 모래 砂原이며 三〇〇m 距離를 두고 東海岸이 된다. 北便은 風湖의 작은내를 사이에 두고 封土의 規模가 큰 古墳群이 東海岸을 連하여 계속된다.

3. 發掘經過 및 構造

調査에 앞서 古墳群 現況을 撮影하고 遺物 散布地의 土器片 및 鐵鏟 鐵長刀 등을 採集한 후 平板測量과 調査 對象 古墳을 選定 하였다.

盜掘古墳 整理를 爲하여 調査된 竪穴式 石槨墳은 便宜上 西一號墳 西二號墳으로 命名하였다.

가, 西一號墳

西一號墳은 山一三四 林野의 中間地點 道路에 接한 古墳으로 封土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아 外形上으로는 砂地와 區別하기 어렵다. 盜掘꾼들이 파헤친 遺蹟으로 四方 一・二m 깊이 四〇cm 크기의 短形 盜掘坑에 長軸 一三五cm 幅 四三cm의 蓋石이 비스듬히 遺棄되어 있어 蓋石이 된 인상대를 짐작하게 하였다.

寫眞을 古墳의 東側에서 西側方向으로 撮影한 후 蓋石을 中心하여 南北 一・二m 東西 四・五m 規模의 長方形 區域을 定한 후 四隅에 角木(柱)을 設置 이것을 다시 半分하여 東西區域으로 갈라 東쪽부터 土層 層位에 따라 除土作業을 하였다.

表土에서 九cm 까지가 暗黑色의 腐蝕土였고 三五cm까지는 明褐色 細砂層이 나왔으며 四七cm 지점에서 남아 있던 蓋石이 發見 되었다. 그런데 蓋石部에서 調査者의 興味를 끄는 것은 蓋石과 蓋石 사이의 빈틈을 精選된 黃赭色의 다진 흙으로 七~一二cm 두께로 메꾸었다. 여기서 東分區의 除土作業을 中止하고 새로이 西分區의 트렌치를 東分區의 레벨까지 파내려 갔으나 東分區와 다른 아무런 層位의 變化없이 蓋石部에 도달했다. 露出된 蓋石은 한개의 크기가 長 一二五cm 幅 三五cm 厚 一六

cm의 規模로 西쪽에 三개 東쪽에 四개 都合 七개가 놓여 있었으며 中央部에는 四枚쯤이 없어져 있었다.

蓋石部 中央의 陷沒된 部分 除土作業중 西便에 二枚 板石을 石槨內部에 세로로 세워 主槨과 副槨의 境界를 이룬 돌이 나타났다. 그 크기는 幅二二cm 長九七cm 두께 五·二cm와 二〇×九一×四·七cm이다.

主槨의 石槨內部를 完全히 調査하기 爲하여 天井蓋石을 除去한후 周圍의 壁面을 整理하여 長二〇〇四〇cm 幅五〇一〇cm 크기의 塊石을 쌓아 만든 石壁임을 確認하였다. 主槨의 東側 土砂 除去중 蓋石下 六二cm 위의 東壁에 가까운 곳에서 長頸壺 二點과 高杯 七點이 出土되었다. 主槨 바닥의 屍身이 安置되었으므로 推測되는 部分을 詳檢하였지만 다른 遺物을 發見할수 없었다.

主槨의 바닥은 주목만한 크기의 납작 납작한 냇돌「川石」을 드문드문 깔아 棺底로 하고 있었으나 遺物이 出土된 槨의 東端部 바닥에는 이러한 냇돌이 없던 것으로 보아 遺骸 밑부분에만 간 것이 아닐까 생각되었다.

副槨의 天井 蓋石은 長一二五cm 幅三五cm 厚一六cm의 三枚의 蓋石으로 築造되었고 蓋石과 蓋石사이를 主槨에서와 같이 精選된 黃赭色의 다진 흙으로 五〇一〇cm 두께로 메우고 있었다. 副槨의 天井 蓋石을 들어낸후 內部에 쌓인 흙을 긁어 내어, 蓋石下 五九cm에서 圓底의 壺五點을 發見하였다. 調査를 마친후 西에서 東으로 撮影을 하였다.

石槨은 東西를 長軸으로 하는 長方形 堅穴式石槨墳으로 東西 全長三·五二m 南北 폭 六六〇六〇cm로 東便쪽이 西便쪽 보다 크며 副槨은 西壁의 끝이 동글게 되어 있었다. 이중 主槨은 長二四〇cm 幅六六cm이고 副槨은 長一〇七cm 幅六五cm로 主槨과 副槨을 二枚의 板石으로 兩分하였고 壁體는 堅축한 人頭大의 돌을 쌓아 올렸으며 石塊 사이의 隙은 石片을 끼우거나 진흙을 바르는 등의 일을 하지 않았다.

主槨의 바닥은 東壁에서 三〇〇四〇cm 즉 副葬品이 놓인 部分을 除外한 二m 範圍에 걸쳐 납작 납작한 川石을 드문 드문 깔았고 特別한 排水

시설은 볼수 없었다.

나, 西二號墳

西一號墳을 中心으로 北北西 方向 山一三四의 숲 북쪽 모서리의 風湖에 가까운 地點에 位置하고 있다. 一號墳과 같이 封土의 흔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砂地와 區別하기 힘이 드나 盜掘꾼들이 古墳 攪亂후 遺棄한 蓋石 二枚가 古墳 周邊에 나뉘어져 있어 쉽게 찾아 낼 수가 있었다. 寫眞을 南에서 北으로 撮影을 마친후 地籍 圖面에 發掘古墳의 位置를 記入하였다.

爲先 露出된 蓋石 中心에서 東西線上에 南北으로 幅一·五m의 트렌치를 팠다. 東端部 地表下 四八cm에서 赤色土器로 생각되는 軟質의 土器片이 出土되어 調査者의 注意를 喚起시켰지만 調査가 進捗됨에 따라 石槨 外部에 묻혀진 土器임을 判明 되었다.

地表下 七五cm에서 蓋石으로 使用되었던 長九〇〇一四〇cm 幅二五〇三五cm 厚五〇一〇cm의 自然石들이 不規則하게 露出되었으며 混亂된 蓋石으로 보아 盜掘된 古墳임을 알수 있었으며 土層도 完全히 攪亂되어 있었다.

특히 石槨 天蓋 中央部는 蓋石이 三〇四枚 除去되어 原形의 損傷이 뚜렷하였고 西一號墳에서와 같이 蓋石과 蓋石사이 빈틈의 흙다짐도 눈에 띄이지 않았다.

蓋石部의 規模는 蓋石 東側 上端에서 西側地點 蓋石下端까지 長二·九五m 幅一·四m였다. 天井 蓋石을 除去한후 石槨內의 陷沒된 部分에서 부터 土砂를 긁어 냈다. 蓋石下 五五cm 西壁에서 四二cm 北壁에서 南으로 七〇cm 位置에서 半破된 土器壺 一點이 出土 되었다.

西一號墳에서와 같이 副槨은 設置되지 않았으며 四壁은 人頭大의 돌을 불규칙 하게 쌓았다.

石槨은 길이 二·六七m 幅은 東쪽 六四cm 西쪽 四九cm로 東便이 넓고 西便이 좁은 形態를 이루고 있다. 바닥은 西壁에서 東側으로 九六cm 東壁에서 西側으로 五六cm를 除外한 中間地點 一一五cm 部分을 손바닥

크기의 川石을 깔았다.

4、遺物

가、西一號出土遺物

① 長頸壺

壺身은扁球形을 이루고 頸部는 밖으로 퍼졌고 直立하였으며 底部는若干平底에 가까운 圓底이다. 色같은 灰黑色이며 비교적 짧은 頸部에는 五條의 隆起線이 있다. 上部에 두출, 中央에 한출 下部에 두출로 각자 사이를 두고 있으며 胴體의 肩部에는 두출의 線이 그어져 있고 그 밖에는 아무런 紋樣이 없었다. 口緣部의 一部가 破損되었으며 轉軸를 사용하여 製作하였다.

口徑二五cm、頸九cm、高三三cm이다.

② 小形長頸壺

比較的 짧은 頸部를 가진 小形항아리로서 두껍은 없으며 頸部는輕微하게 밖으로 퍼졌고 直立하였다. 底部는 圓底이며 色같은 灰黑色이다. 頸部를 三等分하여 四條의 隆起線이 上部에 한출 중앙에 한출 그리고 頸下部에 두출이 둘러져 있고 肩部에서 器腹사이를 二條間域의 머무리를 만들어 間域에 橫行波狀紋을 施紋하였다.

口徑一一·七cm 頸九cm 高一三三cm

③ 高杯七個

臺脚에는 上下二段에 걸쳐 梯形의 透窓이 서로 어긋나게 뚫렸으며 隆起線이 臺脚의 中央과 下部에 띠모양으로 둘러어져 있다. 높이 一四一·六cm 口徑一三·一六cm이다.

西一號副槨出土遺物

① 圓底壺五個

文樣은 없고 頸은 짧고 口緣은 外反되었으며 壺身은扁球形을 이루었다. 高一四~四四cm 徑一六~二三cm 크기의 多樣하며 이중 長頸壺는 口緣

이 外反되었고 頸은 直立하였으며 圓底이고 頸 上下部에 二條의 隆起線 머무리가 있고 間域에 橫行波狀文이 施紋되어 있다.

나、西二號出土遺物

① 赤色土器片

軟質의 土器로서 거의 破損되었으나 尖底로 直立口緣이다. 高三三cm 徑三〇cm로 石槨外部에서 發見되었다.

② 土器壺片

半破된 형태로 比較的 짧은 頸部를 가진 小形항아리로 圓底이다.

5、結論

溟州郡 江東面 下詩洞三里 古墳은 지금까지 그 類型이 혼치 않은 特殊 構造를 가지고 있다. 古墳 蓋石上部는 砂質土 以外에 封土로 使用한 듯이 보이는 土壤이 거의 없었다시피해 封壇의 有無는 確斷하기 어렵다. 石槨은 砂地의 東西를 長軸、南北을 幅으로 長方形으로 깊게 掘鑿하여 石塊를 四壁에 쌓아 擴을 튼튼히 하고 上部는 大小不同인 數個의 扁平한 돌을 옆으로 걸쳐 蓋石으로 한 竪穴式 石槨墳이다.

石槨은 東便幅이 西便幅보다 넓으며 特히 西二號墳 石槨은 東便幅 六四cm 西便幅 四九cm로 頭寬足狹의 形態를 이루고 있다. 西一號墳에서 石槨內部에 二枚 板石을 세로로 세워 主槨과 副槨의 境界를 이룬 主副槨의 區分의 例는 慶南 蔚山郡 溫陽面 日光里 石槨墓에서도 나타나며 여기 石槨墓는 金元龍博士에 依하면 時代가 金海時代에서 三國時代 極初로 推定되는 것으로 下詩洞 三里的 古墳 研究에도 좋은 比較가 될 것이다.

西一號墳에서는 主槨 즉 東便上部에 儀禮用 祭器인 高杯가 主流들이 이루고 西便副槨에서는 貯藏用 土器의 出土로 보아 遺骸는 東枕이 있을 가능성이 짙으며 西二號墳에서 보여 주는 뚜렷한 頭寬足狹의 石槨은 東枕의 確證은 더욱 굳게 하여 준다. 墓制에 있어서는 遺骸를 위로부터 넣고 天井蓋石을 덮은 一封土 一石室의 竪穴式 石槨墓로 洛東江의 西岸—

威安、高靈、金海等地에서 發見되는 石槨墓와의 사이에 어느 정도의 類似點도 찾아볼 수 있으나 木槨의 使用與否는 槨內에서 槨木이 一點도 發見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木槨의 使用與否는 槨內에서 槨木이 一點도 發見되었기 때문에 알아낼 수 없었다. 遺骸는 頭寬足狹의 石槨橫造로 보아 東向한 伸展仰臥葬인 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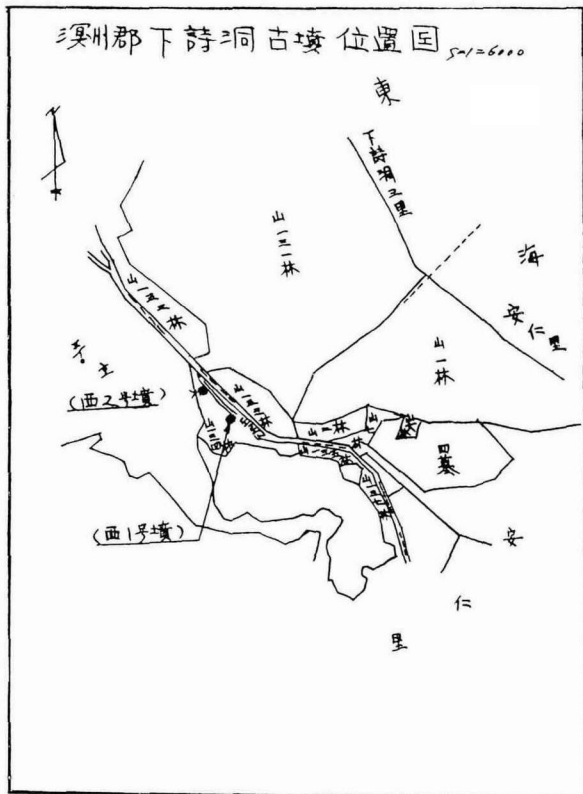
發見된 土器를 보면 高杯가 七點으로 臺의 굽에 上下二段에 걸쳐 梯形의 透窓이 서로 어긋나게 뚫렸으며 隆起線이 굽의 中央과 下部에 떠 무너져 施紋되어 있고 長頸壺는 頸部가 直立한 편이며 若干 平底에 가까운 無臺圓底이다. 頸部에 五條의 隆起線이 있고 肩部에 線刻의 波狀文이 施紋되어 있다.

古墳의 築造年代는 前述한 古墳의 構造로 보아 三國時代 古墳의 古式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많은 資料 위에서 研究되어야 할 것이다.

東海 海邊에 無數히 散在한 下詩洞 三里 古墳은 앞으로 三國時代 墓制 研究에 貴重한 資料가 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 金秉模 「江陵草堂洞第一號古墳」 文化財(第五號文化財管理局 一九七一、一)
- 秦弘燮 「安東造塔洞古墳發掘調査」 考古美術(第四卷第十一號考古美術同人會一九六三、十一)
- 金元龍 「韓國文化의 考古學의 研究」 韓國文化史大系—民族國家史(高大民族文化研究所 一九六四、十一)
- 金吉姬 「伽倻墓制의 研究」 梨大史苑第三輯 一九六一
- 金東鎬 「東來福泉洞第一號古墳發掘調査報告」(東亞大學校博物館 一九七一、四)
- 尹武炳·朴日薰 「慶州西岳里 石室墳發掘調査」 考古學第一輯(韓國考古學會一九六八、六)
- 金永培·韓炳三 「瑞山 大四面百濟土墳墓發掘報告」 考古學第二輯(韓國考古學會一九六九、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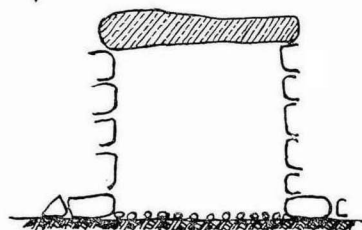


金元龍·金正基 「高靈壁畫古墳調査報告」 韓國考古第一輯 서울大學校文理科大學考古人類學科 一九六七、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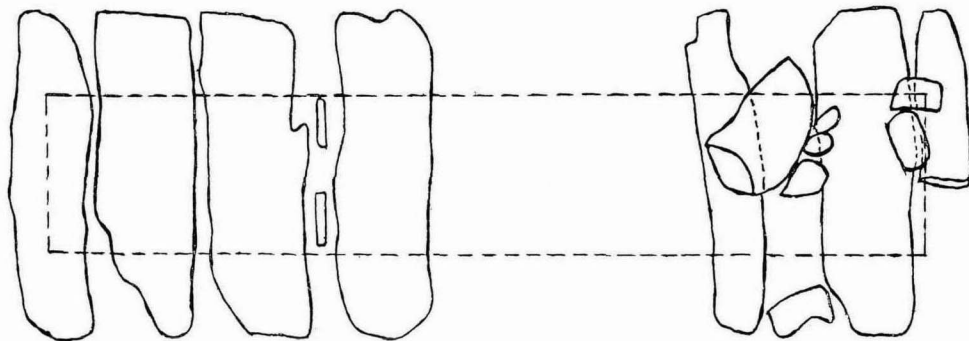
溟州郡下詩洞古墳 突測圖 (西1跡)



断面



蓋石



平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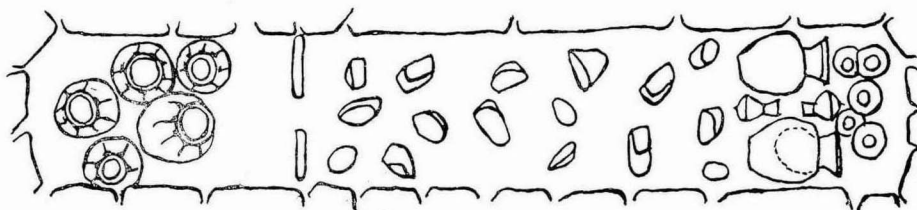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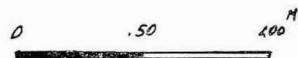




圖1：盜掘墳現況



圖2：西1號(東에 서西)蓋石全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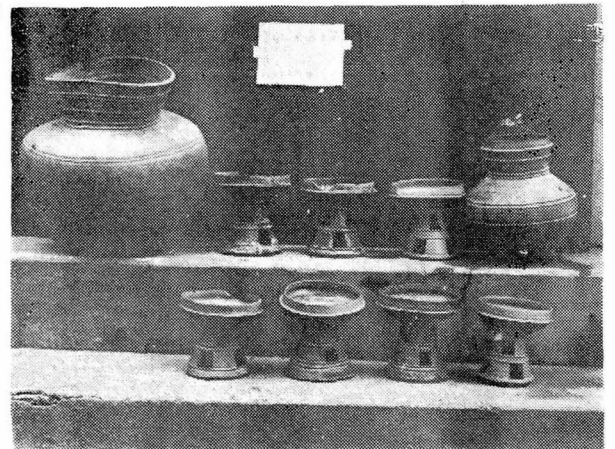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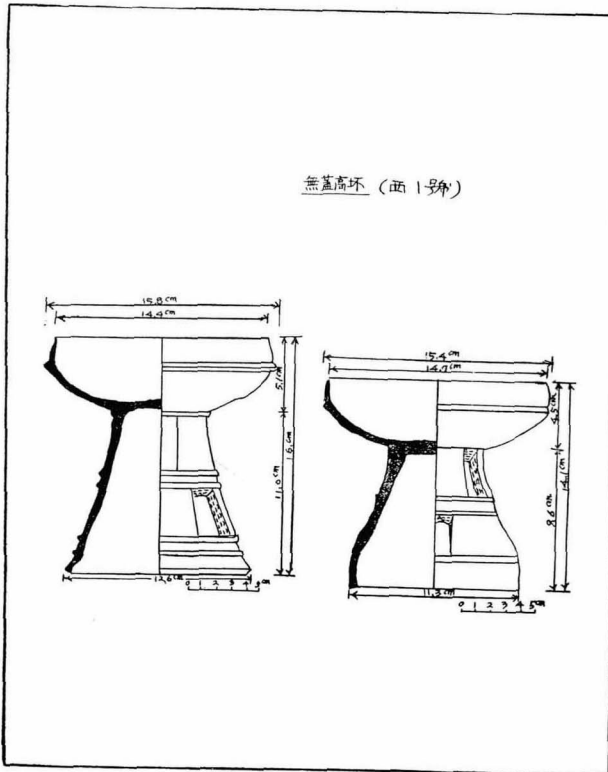


圖3：西1號 主槲出土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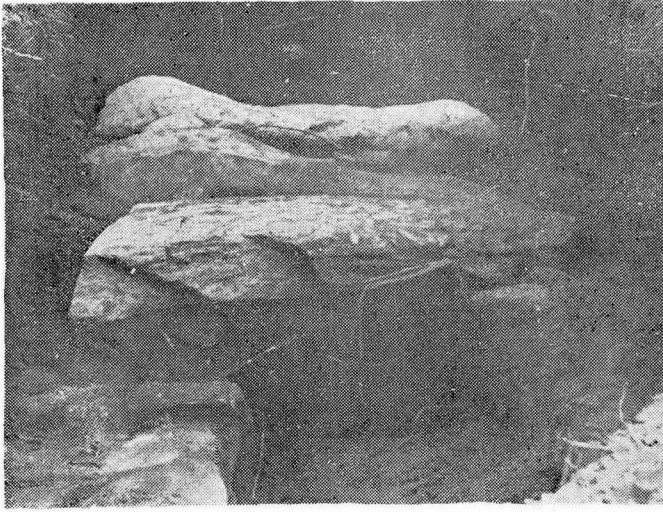


圖4：西1號 副槨蓋石



圖5：西1號墳바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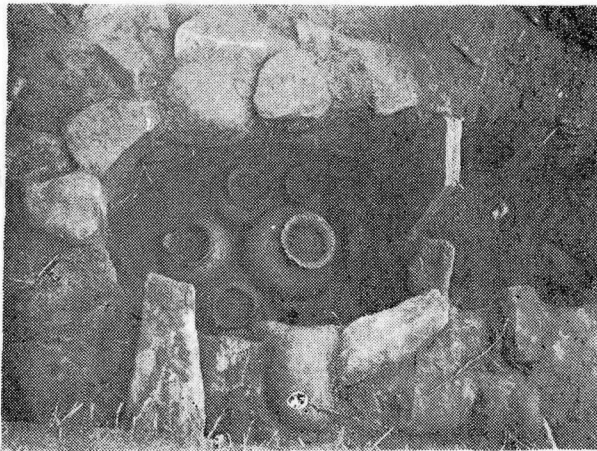


圖6：西1號 副槨遺物出土狀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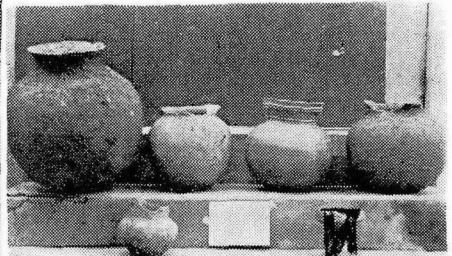


圖7：西1號墳副槨遺物



圖8：西2號墳全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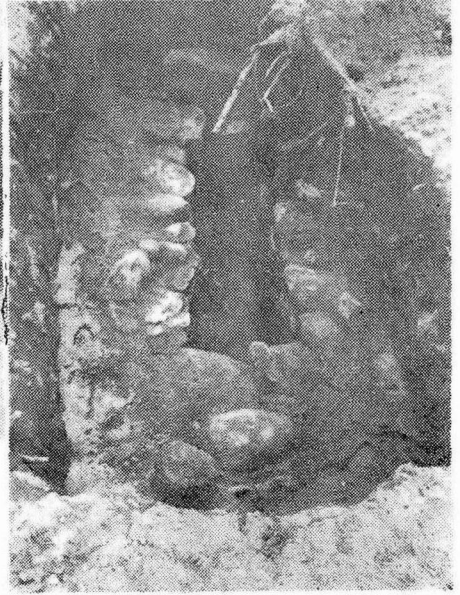


圖9：西2號墳石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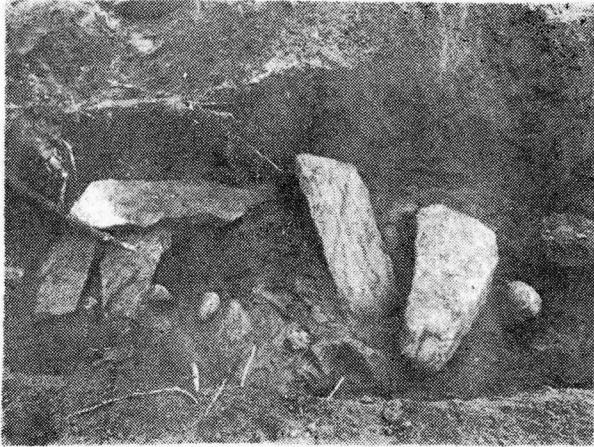


圖10：西2號蓋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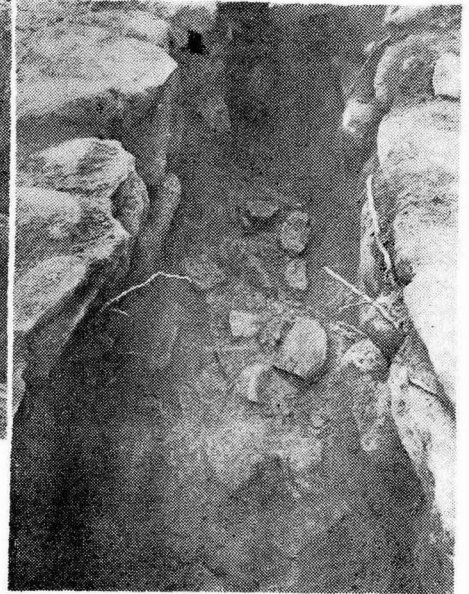


圖11：西2號墳바락(東에서 西)